

언약적 축복으로 변한 광야 40년의 실패들

-복음으로 여는 민수가-

민수기 14:1-3, 사도행전 13:16-23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지 1년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39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3들은 자기들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돌아보니까 고3때가 인생에서 제일 여유있는 시간이었다.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린다. 아무 것도 안 시킨다. 그런데 그 공부를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웃음) 대학 가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인생의 고민이 생기니까, 나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세상과 달리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우리 동기도 세 명이 맞아서 죽었다. 전역 하루 전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고 그랬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대학 졸업할 때쯤이 되면 더 힘든 일이 많다. 대입보다 취직이 더 힘들지 않다. 취직해도 좋을 줄 알았더니 3년쯤 지나면 안 좋다. '에이, 시집이나 가자' 하는데, 결혼해 보면 인생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결혼 안 하면 인생을 아직 모르는 것이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조상 때부터의 문제들이 드러난다. 자녀를 낳아 보라. 육아의 스트레스가 본격적으로 생긴다. 자녀와의 갈등이 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다. 문제가 없어지기보다는 더 많이 생긴다. 너무 힘들니까 교회로 갔다. 처음 1, 2년은 좋았는데, 갈수록 뭘 시킨다. 헌신하라고 한다. 사명자라고 한다. 포기도 못 하게 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하라고 한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편했는데, 이제는 나쁜 짓도 편하게 못 한다.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다. (웃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세상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부르신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과 불신앙, 불순종 속에서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나 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없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한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 홍해를 갈라도, 10계앙으로 구원해 줘도 불신앙한다. 사건만 생기면 안 된다. 못 한다. 불가능하다 하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얼마나 눈이 높은지, 더 큰 증거, 더 큰 역사, 더 큰 말씀의 성취를 달라고 한다. 끝이 없다. 우리의 체질이 불신앙적인 체질인 것이다. 안 믿어야, 불신앙을 해야, 불순종을 해야 혈액 순환이 잘 되는 모양이다. (웃음)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그렇게 엔돌핀이 나오는지 모른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고 하라는 것은 다 싫은 창개 구리의 모습이 우리 체질이다. 잘못된 다 자기가 해 놓고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조상 탓, 나라 탓, 목사님 탓을 한다. 원망을 해야 행복하기 때문이다. 취미가 불평이고 원망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체질로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천명을 수행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나? 나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목사까지 되었다. 복지 사역을 하게 되었다. 남들은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 현장은 지옥같은 현장이다. 너무 어려운 현장이다. 거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광야의 여정, 아픔과 갈등과 영적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은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민족이라고 평가받는 위치로까지 서게 되었다.

1.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내용들

이스라엘은 출애굽 순간부터 광야생활 모든 여정 가운데 셀 수 없이 잘못을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가?

(1) 민수기 11:1-30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너무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하나님 면상에 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XXX!' 했던 셈이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2) 민수기 11:4-6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다. 어떤 가정은 반찬이 좋으면, '야, 기도하자.' 하다가, 반찬이 안 좋으면 쟁그리고, 다시 좋으면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린다. 나도 그렇다. 반찬이 잘 나오면 기도하고 싶더라. (웃음) 주부들은 참고를 해야 한다. 기도 좀 하게 해 줘라. (웃음)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짜증이 안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땅에 살아기는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이 불평 안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광야가 뭐가. 덥고 춥고 그렇다. 욕이 힘들다고 하는데,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욕이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씻기도 힘든데. 뛰어다니는 꼬마가 광야에서 다른 텐트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찾겠나? 그 더운데 애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계속 뛰어 다니고 찾아다녀야 한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자. 그 말 안 듣는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지 않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원망, 불평,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리드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민수기 11:5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해는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것이 떠오른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다. '값 없이'라는 말이다. 값 없이 누구에게 줬겠는가? 노예에게 줬다. 이 사람들이 자유보다 빵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은 영적 자유를 주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노예 생활하던 때를 동경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많이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고민을 해 보았다. 그러다가 결론을 냈다. '나도 그때 그 광야에 있었다면 초창기에 죽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지 않게 하시고, 완전 복음을 알고 누리도록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관망해 산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 않나.

(3) 민수기 12:1-2에, 백성들 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한다. 모세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을 징계하셨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있었지 않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였지 않은가.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바른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한 일이었다. 오히려 미리암을 징계하신 것이다.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월권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살리는 선택,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4) 민수기 13:25-14:10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불신앙을 했다.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분만 기도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봤는데, 그들이 거인이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사실은 봤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 아침에 1, 2분만 기도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불신앙, 불평, 나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힌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안 된다고 했다.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실은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대로 결국 성취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천년의 응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옳다고 말하는 것이 크게 될 수 있고, 그르다 하는 것이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라.

(5) 민수기 16:1-35에, 고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리가 생겨난다. 불신앙을 하다 보면 팀이 형성된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라는 우리끼리 쓰는 격언이 있는데, 불신앙하는 자들은 불신앙의 팀을 형성한다. 여러분은 믿음의 팀이 되시기 바란다. 고리 같은 팀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저주하셨다.

(6) 민수기 21:4-5에,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 날이 유대 날짜로 1월 15일인데, 유월절이다. 이를 후인 1월 17일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 날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서 정박하고 문을 열고 나온 날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후로 45일을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날이 유대력으로 3월 1일이다. 그리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했다. 5일 지난 후, 50일 쯤 되던 날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는 성막을 짓게 하였고,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해서 계시하신다. 거기에서 1년을 머무른다. 다음 해 2월 20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성막 안에서 성막 위로 뜬다.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가데스바네아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거기를 돌고 와서 불신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탐했던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모압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고 돌게 되었던 것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디를 어떻게 돌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다 나와있지 않다. 중요한 몇 개의 사건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 몇 달 안 걸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것이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때를 아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모압 평지, 요단강 서편 땅으로 가는 중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 뿔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에 빠졌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주만 바라보면 된다. 여기에서 놋뿔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이다.

(7) 민수기 25장에서는, 빌람과 빌락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게 된다. 결국 선지자도 타락했다는 것이다. 선지자가 백성을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신천치 같은 이단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은 참 진리만 따르게 되기를 바란다. 민수기 25:1-9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불신앙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거의 다 죽었다. 놋뿔 바라보고 살아남 사람들이 겨우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한 후에도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욕비하고 불신앙하는 메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것이다.

2.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위일체는 불신앙, 불순종, 원망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불신앙하면서 각종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나한테 관심 좀 써 주세요, 나는 사망자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다 죽게 해 주세요' 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었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미 코가 꿰인 몸이 되었다. 한번 도망가 보라.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 끝까지 따라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버리실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백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관심과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다.

(1)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구원을 베푸셔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대 기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것이 곧 기적이다. 전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억지로 나와서, 주일예배 시간에 눈 뜨는 데 5년 걸렸다. (웃음) 목사님과 눈 마주치는 데 또 5년 걸렸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로님까지 되었다. 그것이 기적이다. 안 믿어진다고 하던 분이 안수집사님까지 되었다. 비정규직을 벗어나서 정규직이 되었으니 행복하다고 하셨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받아야 하지만 안수집사는 쪽 가는 거니까. 정말 맞구나 싶더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2)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계약, 법, 약속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율법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을 하는 순간 이행의 의무가 생긴다. 한국 시민이 되는 순간 한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의무, 규례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

으시기 바란다. 1천억 원 짜리 계약을 수주했다.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게 문제인가? 1천억 원 벌게 되는 행복한 기회 아닌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기와 성막이라는 영적 시스템도 함께 주셨다. 이 모든 영적 시스템 속에는, 구원과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이르는 것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수장절은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스케줄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사명자들을 살펴보니, 전부 하나님이 돈을 다 가져가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만들기 위해서 헌금했지 않나? 성막을 바라보면, 램넛들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저기에 있는 아름다운 금촛대와 제단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훌륭하다 하고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성물과 성막을 보면 자기가 낸 돈이 생각났을 것이다. (웃음) 어른들은 애굽에서 놀았던 추억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램넛들은 다르다. 성막에서 은혜를 받고 놀았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은 세상에서 놀던 추억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램넛들은 교회가 곧 놀이터고 추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늦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다. 주일날 등산하고 놀러다니고 친구 만나고 관광 다니고, 불금에는 한 잔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배 가야 하고 금요기도회 가야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른들을 램넛들의 발판으로 삼으셨다.

(3)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정결법으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경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 지금 좀 부족한가. 천국에 가면 천만 배로 채워주실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질적인 고난을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란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경제 응답을 못 받는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몇 주만 갈 수 있는 길이었다.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삶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1)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받은 훈련의 기간은 천 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소중한 기간이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후대 만 대까지 응답받게 하는 가장 소중한 기간이 될 것이다.

(2) 광야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피를 뿌렸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피를 붙잡으라는 것이다. 광야생활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가나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길이 어린 양의 피다.

(3)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삶의 규례가 뿌리내리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시스템이 대단하다. 우리는 규모, 질서가 없지 않다. 유대인들은 그게 대단하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원니스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6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613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 그리스도, 1:3 하나님의 나라, 1:8 성령충만으로 모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박살내는 것이다. 이때 한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영적 원자폭탄이 있다. 모든 불신앙, 불순종, 원망,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깨부술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4)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남은 자 램넛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광야생활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 년 동안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될 것이다. 혹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램넛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주역이 될 것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수준이 광야 40년의 삶과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와 응답을 성취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받은 은혜와 응답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